

# 대학강사 임용시 근무조건 명시

### 정부, 국무회의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일반·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키로

앞으로 대학이 강사 임용 시 작성하는 서면계약에는 임용 기간, 임금, 면직 사유, 재임용 절차 등 구체적인 근무조건이 포함돼야 한다.

정부는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강사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 기준으로 주 6시간 이하를,

겸임·초빙교원은 주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각각 규정했다.

다만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강사의 교수시간은 매주 9시간, 겸임·초빙교원의 교수시간은 매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일반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 입원료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2인실은 본인 부담률

을 40%로, 3인실은 30%로 차등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소득 및 재산이 각각 100만원 미만이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소득이 없는 경우 보험급여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건강보험 부담 수급자를 신고하면 500만원 한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대출 당시보다 신용상태가 나빠지면 은행에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성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가계 대출의 경우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신용등급 상승 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기업은 신용등급 상승이나 재무상태 개선 시 가능하다. 금융사가 금리인하요구를 알리지 않으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카지노 휴·폐업을 사전 신고하지 않으면 시정 명령, 허가 취소, 폐쇄 명령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45건, 일반안건 5건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했다. /뉴스

## ‘떠나는 전북청년 보고만 있을 것인가?’

박주현 의원, 오늘 토론회

전북 지역의 청년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진단하고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5일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8호관에서는 전북희망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박주현 국회의원 주례로 ‘떠나는 전북청년, 보고만 있을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개최된다.



박주현 의원은 지난 4월 24일 전북도의회에서 ‘전북 제3금융중심지, 끝인가? 시작인가?’라는 주제로 제1차 진단과 대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어, 이번이 두 번째 토론회다.

박 의원이 좌장을 맡는 이번 토론회는 김시백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전북지역 청년유출 문제점과 현황 진단’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이어 박우성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투명사회 국장, 김미정 전북도청 일자리정책관, 이정익 전북기자협회장(전주MBC 부장), 박지석 전북대학교 총학생회장이 토론을 이어간다.

민주평화당 전북희망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박주현 의원은 4일 “청년들의 전국 취업률이 42%에 불과한데, 전북 청년의 취업률은 31%로 그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난해 7000명 이상의 전북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있고, 올해는 더 많은 청년들이 떠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전북대 내에서 개최되는 토론회는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공예품대전 시상식** 4일 전북도청 1층 기획전시실에서 공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우수공예품의 수출 및 판로기반 조성을 위해 제42회 전북도 공예품대전 시상식이 송하진 도지사, 송성환 도의회 의장, 진정욱 전라북도공예협회총합 이사장, 김관재 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진흥장, 유관기관 대표 및 수상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을 가진 후 ‘전라북도 공예품’ 파이팅!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12면>

## 전북 광역공공급식센터 설립 건의안 채택

### 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박희자 의원 대표 발의 식생활 환경 조성·먹거리로 인한 사고 방지 등

전북도의회가 식생활 환경 조성과 먹거리로 인한 사고 방지 그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생산·유통·소비에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광역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4일 제364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박희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북형 광역공공급식센터 설립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문제인 대동령은 국가 푸드플랜을 식품 분야 핵심으로 강조하고, 공공급식을 관리하는 기구로 기존에 설치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공공급식지원센터로 활용하겠다는 공약을 지난 대선에서 내세웠다.

하지만, 도내 14곳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중 몇몇을 제외하면 학교급식조차 완벽히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먹거리로 인한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북도내 급식 총 예산은 2000억원이 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공공급식지원센터로의 전환’은 역할론적인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버거울 것으로 보인다.

이해 학교급식지원센터 활용이 아닌 광역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를 통해서 보완·상생하며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박 의원은 “최근 친환경 급식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공공급식 정착과 함께 지원 대상도 날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에 도내 급식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광역공공급식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희자 의원은 “식생활 환경 조성 과 먹거리로 인한 사고 방지 그리고, 우수한 지역농산물을 안전하게 공급해 먹거리 복지증진과 도내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광역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진성 기자

## 도의회 문건위, 2018 회계연도 결산 심사

### 오늘까지... 건축기본계획 청취의 건 의견 제시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정호윤)는 4일 제364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갖고 도민안전실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와 제2차 전라북도 건축기본계획(안) 청취의 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문건위에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대해 세입·세출 예산의 적법성, 공정성, 능률성, 효과성을 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의 과대계상으로 예산의 사정여부를 검토하였다.

정호윤 위원장(전주1)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사업 집행잔액과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도내 건축·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향후 5년간의 비전을 설정하여 광역차원에서 건축정책을 제시한 제2차 전라북도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과 관련해 몇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이정린 의원(남원1)은 전북의 자산인 한옥건축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시군의 수요에 대응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옥건축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최근 공공건축 디자인에 대한 국가적 정책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전북차원의 특색있는 공공건축가 제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한기 의원(진안)은 다양한 목표와 전략과제를 제시하는 것도 좋지만, 건축에 대한 전라북도의 특색있는 주제가 제시되어 향후, 전북의 전통성이나 전북만의 차별성이 있는 건축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 도의회 농산경제위 결산 승인안 심사

### 도 농식품국 소관

전북도의회 농산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는 4일 제364회 정례회 상임위 제1차 회의를 갖고 전북도 농축수산물식품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강용구 위원장을 비롯한 농산경제위원회 위원들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관계법령에 근거한 회계운영 및 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적정성 등에 대해 질문하고, 이월사업 및 불용액 발생 최소화 등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농축수산물식품국 소관 사업들은 농민 등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비 미송금에 따른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로 적기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 반영 단

계에서부터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철수 의원(정읍1)은 2018회계연도 각종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이 2017회계연도와 비교할 때 대폭 감소한 것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철저한 사업 계획 수립 등이 있어 가능했다며, 향후에도 예산이 도민을 위해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강용구 의원(남원2)은 국비 미송금으로 이월된 사업들을 살펴보면 사업 추진이 미진한 사업들이 많으며 국비를 적기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에 속도감을 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비 확보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동물위생시험소 각 지소의 부서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이를 통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진성 기자

## 도의회 환복위, 전북도장애인복지관 방문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최찬욱)는 4일 장애인의 권익신장 및 인식개선 등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복지관 주요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관련 시설 등을 확인했다.

또한 복지관 관계자로부터 고충을 들은 뒤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들은 특히 행정분투, 쓰레기봉투 등을 생산하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찾아 장애인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작업현황을 둘러본 뒤 관계자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처우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최찬욱 위원장은 “도내 장애인 인구와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 제공은 물론 지원기반 지원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 개선 및 권익신장을 위해 전북도의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지안고원**  
JINAN GORYEO

NAVER | 진안군 | D+M | 마이산

부귀 메타세라이어길

진안고원의  
**여름으로가는길**

울창한 숲과 시원한 계곡이 있는  
진안고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운일임반일임

길거리곡

마이산 탐일지 아걸

면면의 길

여름을 여는 **1004 콘서트** **樂** 2019. 7. 4(목) 19:00  
마이산 북부 관광 야외 특설무대